

## 근대 초기 소설의 허구성의 변모 양상 연구 — 『혈의루』와 『빈상설』의 문체 변화를 중심으로 —

정 영 진\*

### 요 약

본고는 1900년대 중반 이후 소설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양식상의 변화들을 허구성의 변모라는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근대 초기 소설은 매체 담론의 영향 속에 차차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내용의 변화는 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바, 새로운 기법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소설의 허구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반영한다. 1906년 이후 장형 서사가 유행하면서 소설 양식은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시기 소설은 사실의 기록이라는 주장 하에 현실에 기반한 일상적 허구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픽션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의 기록이라는 이시기 소설의 기치는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기 위한 실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초기 신소설 『혈의루』와 『빈상설』 두 편을 대상으로 사실에 착안한 새로운 소설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소설은 상황의 실재성을 통해 현실의 감각을 재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의식은 문체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신소설은 -더러체로 대표되는 구투와 함께 -다체를 혼용하고 있지만 이들 문체는 서술의 방식에 차이를 부여하면서 구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적 시간으로 부상하는 장면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신소설의 화자가 객관적 면모를 갖게 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신소설이 주장한 사실에의 강조는 당대성을 반영한 현실의 기록으로

\* 인하대학교 강사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설이 사실의 가치를 통해 당대성을 인식하고 가상이 아닌 실재를 통해 허구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주제어: 신소설, 허구성, 문체, 시간성, 장면 중심

## 목차

1. 소설 양식의 근대적 전환과 허구의 개념
2. 근대적 삶의 재현과 현재성의 포착
3. 장면의 부상과 객관적 서술의 가능성
4. 초기 소설의 양식적 정립과 허구성의 자각

## 1. 소설 양식의 근대적 전환과 허구의 개념

1900년대 중반 이후 신문과 잡지에서 ‘소설’란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현상<sup>1)</sup>은 당대 현실의 위기와 그것의 극복을 위한 매체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된다. 이시기 소설은 논설의 연장으로써, 또한 현실의 우회적 반영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계몽의 역할을 폭넓게 수행하였다. 당시 ‘소설’란에 게재된 서사물들은 그 활용 목적에 따라 내용과 분량, 형식 등이 매우 다양하였으나 양식적으로는 주로 전대 소설의 기법들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화나 문답으로만 진행되는 서사체<sup>2)</sup>나 우화, 몽유 등의 환상적 서사체<sup>3)</sup>, 영웅

1) 1906년 『대한매일신보』가 소설란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동해 『제국신문』, 『황성신문』, 『경향신문』 등이 모두 소설란을 개설하였다. 잡지의 경우 1906년 7월 창간된 『대한자강회월보』가 소설란을 설정하며 등장하였고, 『소년한반도』도 동해 11월 창간하면서 소설란에 이해조의 『잠상태(岑上苔)』를 연재하였다.

2) 문답체나 토론체 서사 양식은 19세기 말부터 신문 매체에서 빈번히 등장하기 시작하여 190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이들 작품은 잡보나 소설란에 게재되었

의 사적을 소재로 한 일대기적 서사체 등이 사용되었고, 전지적 화자가 서사의 전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 등 구소설의 익숙한 양식들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비록 이러한 서사물들이 근대 소설의 조건에는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일정시기, ‘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매체에서 광범위하게 재생산되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실상 이들 소설은 최소한의 이야기 형식에 교훈적 내용을 입힌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다. 이는 초기 소설의 성격과 그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한다. 즉 근대 초기 소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과거로부터 ‘소환’된 것이었으며, 전대 양식의 유지와 계승은 독자 확보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기 소설에서 발견되는 구소설적 양식들은 기법적 미숙함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소설은 매체라는 지반 환경 속에서 생산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점들을 함유하게 된다. 문명, 개화, 교육, 자강이라는 이시기 매체 담론들의 영향 속에 소설은 보다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고, 사실에 기반 한 내용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특히 무서명 소설들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시기 소설은 매체 운영진의 기획 하에 일반 기사의 연장으로 활용되면서 근대 세계의 현실을

으며 서사에 논설이 강하게 결합한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 김영민,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반 한국의 근대문학-서사문학의 전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49호, 2008. 참고.

- 3)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06년 천주교에서 창간한 『경향신문』 ‘소설’란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소설’란에는 약 50여 편의 서사물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민담이나 설화 등 익숙한 서사 구조를 변용한 이야기형식의 서사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 4) 1905년 이후 증설된 신문 매체의 소설란에는 대개 전통적 서사 구조를 차용한 단행의 서사물이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이들 소설은 신문 매체의 특성상 일회분의 길이가 잡지에 비해 비교적 짧으며 제목과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잡지에 게재된 소설들은 신문에 비해 분량이 길고 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영하고 이를 교육하는 내용들을 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설은 새로운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써 또한 현실의 감각을 일깨우는 양식으로써 점차 새로움을 획득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발생기에 있어 소설은 근대 세계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전 소설과 일정하게 구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의 변화는 양식의 변화를 유도하는 바, 새로운 서술 기법들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sup>5)</sup> 대화와 지문을 분리하고 묘사를 시도하는 등 기존 소설의 주관적 서술들이 점차 독자의 개입을 허용하는 객관적 서술로 변모하는가 하면, 상황의 제시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그리게 되면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은 가구(假構)의 이야기이지만 허구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모하면서 적합한 표현 양식들을 생성해내기 때문이다.<sup>6)</sup> 이시기 들어 소설은 “허망한 괴담과 소박한 수필”의 수준에서 “점점 사실적, 현실적으로 자기의 연은 바를 솔직하게 그리”<sup>7)</sup>는 방향으로 허구의 의미를 재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소설 양식의 변화를 견인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8)</sup> 소설이 당대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실적 사건과 인물

5) 일례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문답형 서사물들의 변화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이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문답형 서사물들은 국한문전용이었던 때부터 잡보란에 국문으로 실리며 국문서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 이들 작품들은 문답형 서사체를 유지하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문답형에서는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준다. 문답의 중간에 지문이 삽입되거나 인물이 묘사되는 등의 변화와 함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현실성이 부각되고 이를 통해 계몽의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6) 근대 초기의 단형의 서사는 그것이 갖는 당대성과 사실성으로 말미암아 전대 서사 양식의 특징인 ‘도청도설(道聽塗說)’이나 ‘허언낭설(虛言浪說)’에서 벗어나 허구에 대한 인식의 재형평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서은경, 『1900년대 “단편소설(短篇小說)”과 1910년대 “단편소설”에 대한 비교적 고찰 - 계몽의 후퇴와 주체의 전면화』, 현대문학의 연구 31권, 2007. 217-218면.

7) 김대준, 『조선소설사(朝鮮小說史)』(1), 동아일보, 1930. 10. 31.

8) 일상적 허구의 역설적 기능을 명청대의 소설 비평은 ‘뵈진(遍眞)함’이라는 개념

에 집중하게 되면서 서술자는 전능한 위치에서 일상의 관찰자로 변모되고, 서술의 일방성은 묘사를 통한 보여주기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서사적 시간에 따라 장면을 제시하여 상황을 서술하는 기법들이 증가하게 되는데<sup>9)</sup>, 이는 소설이 현실의 구체성을 포착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1900년대 신문 매체를 통해 널리 생산되었던 단형의 서사물들은 이같은 소설 양식의 변화를 견인하는 전단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0)</sup> 이들 소설은 분량과 체제 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사실적인 내용과 이야기 구성으로 소설 양식이 대중성과 현실성을 확보해 가는데 기여했다. 한편 1900년대 중반 이후 소설에서 보이는 다양한 변화들과 양적 증가세는 소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확대와 연관된다.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되면서 소설은 “바른 가르침”<sup>11)</sup>으로 건전한 국민을 양성한다는 교육적 목적 하에 적극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1906년 『월남망국사』를 시작으로 역사·전기류의 장형 서사물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매체에서는 중장형의 새로운 연재 서사물들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소설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으로 포착하고 있다. 소설이란 실제 삶을 묘사(描寫)한다는 ‘사실(寫實)이론’이나 ‘인정세태(人情世態)’를 그려낸다는 ‘세정설(世情設)’, 인물의 다양한 성격을 생생하게 그려낸다는 ‘전형론(典型論)’ 등의 새로운 소설론이 등장할 수 있었다. : 윤영실, 『근대계몽기 ‘역사적 서사(역사/소설)’의 사실, 허구, 진리』, 한국현대문학연구, 2011. 69면.

9) 문한별은 이를 ‘장면중심체’라는 명칭으로 설명한다. 장면중심체는 서술 내용에서 인물에 대한 내용은 축소되거나 배제되고 사건이나 장면, 지역이나 사적 등의 의미와 배경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장면중심체는 근대전환기 신문과 매체에 실린 서사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글쓰기의 틀을 벗어나는 서사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 문한별,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 : 학회지와 신문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009. 참고.

10)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참고.

11) 박은식 역,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 대한매일신보사, 1907. ; 임화, 『개설신문학사』(5), 『조선일보』, 1939. 12. 12.에서 재인용.

시기 소설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특히 신소설을 비롯한 장형 서사의 유행으로 소설 양식은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당대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현실의 감각을 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며, 또한 인쇄자본주의의 확산 속에 독자들의 흥미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고는 1900년대 중반 이후 소설에서 보이는 이같은 변화들에 주목하여 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허구의 의미를 재조정하고 근대적 양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실제적 텍스트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시기 소설에서 발견되는 ‘기(記)’ 의식에 주목하여 사실에의 강조가 소설적 허구로 결과되는 양상을 문체와 기법, 구성상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이 사실의 기록이라는 주장은 1900년대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면서 동시에 한계로도 지적되어 왔다. 사적 기록에 의거한 역사·전기물에 비해 당대 실사(實事)<sup>12)</sup>의 기록임을 주장한 신소설은 사실에 치중하면서 허구의 개념을 무화시키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의 연구들에서 1900년대 소설은 전통 서사와 근대의 외발적 충격에 의한 지각변동<sup>13)</sup> 속에 과도기의 과정<sup>14)</sup>을 겪으며, 사실의 긍정성으로 소설의 자리를 재편<sup>15)</sup>하고, 매체의 상업성에 부응<sup>16)</sup>해 갔다고

12) “사실(事實)은일청전쟁(日淸戰爭)시(時)에 평양(平壤)이북(以北)인민(人民)이 오투(鬪)에경배(鯨背)가탁(拆)호파여(如)히병화(兵火)를경(經)호는중(中)에평양성(平壤城)중(中)에옥련(玉蓮)이라는김씨(金氏)여아(女兒)가무한(無限)호인난(因難)을경(經)호고외국(外國)에유이(流離)호머유학(留學)호실사(實事)가유(有)호니”; 『혈(血)의누(淚) 광고』, 중앙서관(中央書館) 1907. 5. 25.

13) 윤영실, 『근대계몽기 ‘역사적 서사(역사/소설)’의 사실, 허구, 진리』, 한국현대문학연구, 2011. 64면.

14)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규찬, 한진일 편, 한길사, 1993. 참고.

15) 권보드래는 1900년대 소설이 사실의 기록임을 주장하면서 소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피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소설의 허구적 자질은 1910년대에 들어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신문이 사실로 유통되는 글쓰기로 인정되면서 허구가

평가하고 있다. 즉 이시기 소설은 전대의 유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시장과 독자에 적응하기 위해 사실의 가치로써 허구의 부정성을 극복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사실의 도입이 소재적 차원에만 그쳐<sup>17)</sup> 소설의 경험적 현실로 승화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히려 사실과 같을 수 없는 소설이 현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즉 소설은 가구(假構)의 사실을 실사실과 같이 보여야 한다는 소설문학의 원리<sup>18)</sup>를 의식하면서 소설의 사실성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황당무계한 거짓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일상적 허구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본격적인 픽션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1900년대 소설에서 발견되는 이같은 변화들을 초기 신소설 두 편(『혈의루』(1906), 『빈상설』(1907))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소설은 사실에 착안한 새로운 소설의 초기적 형태를 보여주면서 양식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들 소설에서는 그간 여러 논자에 의해 지적되었던 종결어미 ~다체를 통한 문체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소설의 허구성이 변화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기법으로써의 문체가 소설 양식의 변화를 이끄는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체는 소설의 시간성을 현실적으로 재현하는데 기여하고 객관적 서술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소설적 세계는 사실적으로 구조화되므로 이는 소설적 허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소설의 고유한 근거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12. 129-142면.

16) 한기영,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참고.

17)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12. 239면.

18)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규찬, 한진일 편, 한길사, 1993. 162면.

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여 1900년대 소설에서 보이는 사실에의 집착이 허구를 탈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설의 문법으로써 허구를 새로이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가기 위한 노정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2. 근대적 삶의 재현과 실재성의 포착

신소설이 ‘사실’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보이게 하는 표현 기법에 있다. 따라서 사실을 그대로 옮긴다는 의미의 ‘기록’은 소설의 기법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이다. 신소설의 새로움은 당대성의 발견에 있다. 이는 신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무대로 삼으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사실과 같이 그려야 한다는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신소설은 상황의 실재성을 통해 현실의 감각을 재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의식은 문체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신소설은 국문체를 전용하면서 일상의 구어를 재현하기 시작한 것 외에 특히 종결어미 사용에 있어 그간의 ~더라, ~이라, ~노라, ~지라체와 함께 새로운 문체로써 ~다체를 사용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술의 직접성이나 현재성, 객관성을 드러내는 지표로써 ~다체의 등장은 소설의 전반적 분위기를 실재적인 것으로 환기시키는 한편 인물과 사건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이같은 ~다체가 현실감 있는 묘사나 직접 발화, 내적 독백의 유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sup>19)</sup>하였지만, 부분적 사용에 그치고 있다는 이

19)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12, 263-266면.

김윤진, 『1900~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종결어미 ‘-다’에 대한 고찰』, 상허학보 제49집, 2017.



유로 이를 별개의 현상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러나 새로운 문체의 등장은 새로운 의식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는 곧 소설적 세계관의 변화를 암시한다. 문체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서술자의 위치와 태도, 시선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는 근본적으로 작가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소설에 있어 ~다체의 등장은 새로운 소설 문법의 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새로운 문체를 통한 양식상의 변화들을 허구성의 변모 과정과의 상관관계 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1906년 『만세보』에 연재된 이인직의 『혈의루』<sup>20)</sup>는 청일전쟁의 전장을 배경으로 새로운 소설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평양성 내를 울리는 총소리로 시작되는 첫 장면은 전쟁의 현장성을 강렬하게 환기시키는 한편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①일청전장의 총소리는 평양일경이 썩어가는듯하더니 그총소리가 굿치미 사름의즈취는 쓰너지고 산과들에비린씩씩쓸뿐이라

②평양성의모란봉에 썩러지는저녁벗은 누엿너머가는다... 숨이턱에단드시 갈팡질팡하는 혼부인이나히 삼십이되락말락하고 얼굴은분을 싸고넌드시 흰얼골이느인정업시 쓰겁게느리쫓히는가을벚에 얼굴이익어서 선잉의빛이되고 거름거리는 허동지동하느디 옷은홀러느려서 젓가슴이다드러느고 치마짜락

사에구사도시카쓰(Saegusa Toshikatsu),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 - 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루」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15권, 2000.

최태원, 「〈血의 淚〉의 문체와 담론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20) 이인직, 『혈의루』, 『만세보』, 1906. 7. 22.~1906. 10. 10.; 본고에서는 1907년 3월 단행본으로 발간된 광학서포판으로 인용한다. 연재본과 단행본은 일부 차이가 발견되나, 문체적인 면에서 연재본의 부속국문체가 단행본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국문체로 전환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행본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은싸헤질질떨려서 거름을건는디로 치마가발피니 그부인… 멀리  
 리가지도못하고 허둥거리기만흐다

③무슨소회가 그리디단흔지 그부인더러무를지경이면 디답  
 할여가도업시옥년을부르면서 도라닷니더라

④옥년아, 옥년아, 옥년아, 옥년아, 죽엇느야사럿느야 죽엇거  
 던 죽은얼골이라도 흔번다시만느보자……

흐면서옥년을차지려고 골몰흔정신에 옥년이보다 열갑절  
 스무갑절더소중하게싱각흔는 사람을일코도모르고 옥년이만불  
 으며 다니다가 목이쉬고 괴운이 탈진흐야 산비탈잔디풀우에  
 털석 주저안졌다가 혼자말로 옥년아버지는 옥년이츠지려고 저  
 건너손밧흐로가더니 어디까지근누 흐며 옥년이톨춷던마음이  
 훌지에변흐야 옥년아버지를 기다린다.<sup>21)</sup>

소설은 총격이 그치고 난 후 사람의 자취가 끊어진 평양성 북동  
 쪽의 모란봉 산자락에서부터 시작된다.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여인의  
 황망한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위의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혈의루』는 전쟁이 야기하는 일상적 삶의 균열과 비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그 초점은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비유되는 집단적  
 삶의 방식에 맞추어져 있으며, 청일전쟁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경유  
 하며 해체, 봉합되는 과정으로 모아진다. 서두에 배치된 청일전쟁은  
 서사의 전주곡으로써 상황의 실재성과 서사의 개연성을 담보하는  
 모티브로 작용하면서 서사적 시간을 구체화하는 매개로도 기능한다.  
 『혈의루』는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이후 약 9년간의 흐름으로 진행되  
 는데, 그 분절점은 옥년이 근대적 교육을 이수하는 시기로 설정된  
 다.<sup>22)</sup> 이때 청일전쟁은 그 흐름의 기원으로 지속적으로 환기되며

21)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 1~2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22) 『혈의루』의 서사는 크게 세 개의 분절점을 가지고 진행된다. 그 중 첫 번째 시  
 기는 청일전쟁 당시로 옥년이 가족과 헤어져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게 되는 시기  
 이다. 두 번째 시기는 옥년이 오사카에서 심상소학교를 졸업하는 4년 후로, 이  
 때 구완서를 만나 다시 미국으로 이주한다. 세 번째 시기는 옥년이 미국에서 고  
 등소학교를 마친 5년 후의 시기로 그려진다.

서사적 시간에 균질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혈의루』는 청일전쟁의 역사성으로부터 서사적 맥락의 사실성을 획득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 시간으로 분할하면서 허구적 세계를 현실적인 것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전개한다.

소설적 세계가 근대적 시간관에 의해 현실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면의 현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는 지표들은 서사적 시간에 구체성을 부여하지만 장면이 현재적인 것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현의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혈의루』는 이를 위해 묘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②의 문장부터 인물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면서 시간은 정지되고 장면은 현재적인 것으로 전환된다. 이때 묘사가 현재적인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문체를 통해 구체화된다. ①의 문장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경의 변화를 서술하면서 ~이라체를 사용한 반면, ②의 문장은 묘사를 통해 드러나는 행위의 현재성을 ~다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다체는 묘사와 함께 사용되면서 서술의 객관성을 드러내는 한편 장면의 현재성을 소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의루』에 있어 묘사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기제로도 사용된다. 위 인용문의 ④에서는 인물의 외양과 함께 심리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때 화자는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 행위의 근거가 되는 심리를 밝히고 이를 다시 행위로 연결하고 있다. 즉 “옥년이를차지려고 골몰헌정신”에서 “옥년이만불으며 다니”고 “산비탈잔디풀우에 털석 쥘저안”는 행위가 나타난다면 이후 “옥년이를춧더마음이 홀지에 변흔”게 되면서 그것은 “옥년아버지를 기다”리는 행위로 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심리는 행위를 유발하는 객관적 근거로 제시되며 ~다체를 통해 그 변화의 과정은 현재형의 시점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혈의루』는 ~다체를 동반한 묘사로 시간의 흐름을 현재적인 것으로

제어하면서 이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근대적 이동수단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혈의루』의 공간적 배경은 조선에서 일본, 미국을 거쳐 다시 조선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간들로의 이동 과정은 주인공 옥년의 수난의 역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그 이동의 경로는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 근대적 이동 수단은 시간과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로 등장한다. 우선 일본과 미국으로 이동할 때에는 화륜선이 등장하고 각 공간적 좌표들은 시간적 거리, 즉 나흘, 삼주라는 구체적 시간으로 환산되어 제시된다. 이에 따라 소설의 시간과 배경은 이동 경로의 구체적 시간과 조응하며 현실성을 획득하게 된다. 화륜선 외에도 인력거와 기차가 등장하는데 화륜선에 비해 규모가 작고 이동 시간이 짧은 만큼 그 속도감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이때 속도감은 인물의 심리와 연동되면서 시간에 따른 내면의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 시간을 반영하는 기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① 옥년의 눈에는 모다 쳐음보는 것이라 ... 진에 갖치기 여가는  
 기차는 입으로 연기를 확확 뿜으면서 비에는 천둥지동하듯 구르  
 며 풍우 갖치다라는다... 인력거 박쾌소리에 정신이 업는 디병덩이  
 인력거 둘을 불너서 저도 타고 옥년이 도더우니 그 인력거들이 살  
 갖치가는 지라 옥년이 가길에서 아장아장 거를 썩에는 인희중에  
 너머질가 조심되야 아무싱족이 업더니 인력거우에 올느안지막  
 식로히싱족만는다

② 인력거야 천천이가고지고 이길문다가면 남의 집에 드러가  
 셔 밥도 어더먹고 옷도 어더입고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불편할터  
 이로우나

③ 인력거야 어셔 빗비가고지고 굼굼하고 알고자 하는 일은 어  
 셔 빗비눈으로 보아야 시연한다...

④ 그러히싱족에 눈물이 비오듯하며 흑흑 늑기며 우는디 인력

거는 불서 정상군의 집압해와서 느려눕는다 옥년이 조심되는  
 마음에 자근뭉이더옥작아진듯 하다... 눈물이 쫓고치고아니는 온  
 다<sup>23)</sup>

위의 장면은 옥년이 화륜선을 타고 처음 일본에 당도한 직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①에서는 우선 낮은 환경에 놀란 옥년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도 기차는 7살 어린 아이의 눈에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비춰진다. 그것은 커다란 지네같은 외양만이 아니라 “연기를 확확뿜으면서 천동지동하듯구르”는 기차의 강렬한 속도감에 압도된 까닭이다. 이때 기차의 속도는 “풍우갓치다라는다”는 현재진행의 시점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기차에 놀란 옥년은 다시 인력거 바퀴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인력거우에 올느안지미” 그때서야 자기의 내면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시로히싱극만는다”는 문장 이후 본격적으로 옥년의 내면이 그려지고, 이때 ~다체는 내면 서술을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인물의 심리가 인력거의 속도에 비례하여 상반된 양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②의 문장에서 옥년은 “인력거야 천천이가고지고”라며 남의집 살이의 어려움을 걱정하다가 곧이어 ③에서는 생각을 바꿔 “인력거야 어셔빳비가고지고”라며 궁금한 것을 빨리 보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인물의 심리는 “천천이”, “어셔빳비”라는 인력거의 속도에 비유되어 묘사되며 이는 시간성이 심리를 통해 내면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이같은 내면의 흐름이 마감되는 지점에서 ~다체가 사용되면서 이어지는 장면과의 일정한 구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 현재적 시점에서 장면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인력거 안의 시간의 흐름은 심리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다가 인력거가 정지하면서 중단되고 다시

23)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 37-38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현재형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④에서는 정상군 집앞에 당도한 후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고 외부적 환경에 반응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이때 옥년의 외부적 상태는 다시 ~다체를 통해 현재형으로 포착되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다체를 통해 현재적 관점에서 인물의 내면 변화가 순차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다음의 장면에서도 발견된다.

①목이 머이는소리로 눈에 눈물이 가랑~햐야 고기를살짝 수구린다

②서성이 물그림이보고 셔로아모말이업든디정거장호각한소리에 기차화통이셔 흑운갓흔연기를 흑흑니뿜으면서 기춑가다라는다

③옥년이가 가고자흐는길을 갈지경이면 자목가는동안이 더 단이더된듯흐련마는 기차표디로 자목외에는 더굴슈업는고로 시려도 니릴곳이라 형세죇케다라는는기차의 셔슬은오늘히전에 흐닐밧까지 갈썬디 자목정거장이 머지아니흐다<sup>24)</sup>

위의 인용문은 옥년이 일본에서 심상소학교를 마친 후 정상부인의 집을 떠나기 위해 무작정 기차에 올라탄 장면을 그리고 있다. 기차에서 옥년은 조선인 청년 구완서를 만나 간략한 이야기를 나누다 ①의 문장에서 드러나듯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때 ②에서 정거장 호각소리와 함께 기차가 다시 속력을 내면서 옥년의 내면이 드러난다. 기차는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지만 ③에서처럼 옥년은 오늘따라 그 속도가 빠르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목적 없는 행선지와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다. 만일 목적이 분명했다라면 시간이 대단히 더디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시간의 흐름, 즉 속도는 인물의 심리를 반영하는 기제로

24)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 61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인물의 내면 변화는 ~다체에 의해 포착되고 있다. ~다체가 현재적 시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인물의 내면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각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시간성의 반영이 근대적 이동수단인 기차의 시간과 그 속도감에 의해 제시되면서 소설적 세계는 근대 세계의 질서를 점차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다체는 현실의 재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행위와 심리에 내재한 근대성을 반영하는 기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처럼 『혈의루』는 상황의 실재성을 환기시키는 사실적 요소에 근대적 시간관을 결합하여 소설의 시공간을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sup>25)</sup>하고, 종결어미 ~다체를 통해 이를 실제적으로 포착하면서 근대 세계의 질서를 내면화한 실재적 허구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서사적 시간이 단 3일로<sup>26)</sup> 집중되고 있는 『빈상설』<sup>27)</sup>의 경우 사건의 긴박한 전개를 통해 서사적 시간을 분할하면서 ~다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화와 행동으로 장면을 보다 생동감 있게 재현해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인과에 의해 조밀하게 분할되면서 서사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군밤사오 군밤사오 설설슬는 군밤이오 물으니덥소 군밤이오

25) 이창익, 『근대적 시간과 일상의 표준화』, 역사비평, 2002. 여름호. 참고.

26) 전체 154쪽의 광학서포판 단행본 『빈상설』을 기준으로 복단의 죽음으로부터 사건의 긴박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123쪽까지이며, 여기까지의 서사적 시간은 3일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후 결말까지의 약 20페이지 분량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앞선 전개에 비해 비교적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27) 『빈상설』은 1907년 10월 5일부터 1908년 2월 12일까지 『제국신문』에 연재되었고 이후 1908년 7월 광학서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1908년 간행된 광학서포판으로 인용하기로 한다.

/ 서양목테를 흔허리 썩썩어민든 밤집게를 쌍에다 툽더지고/  
오동빗긷흔 검잉뭇은손으로 머리를 득득글그며/ 이룬기막힐일  
도있나…돈이잇셔야 쌀을팔아다가 우리덕아씨 저역진지를 지  
어드리지

줍어니를 부시럭 부시럭 글으고 동전열암은푼을 니여들고  
논먼고양이 뉘의알 어르듯흐논디

울는숫스로 양복을 말숙흐게지어입고…중녀단장을오강스공  
노질흐듯 휘휘니들으며 가가압혜와짜혀더니

이에 군밤스즈

군밤장스가까작놀나며 얼푹이러나 두손길을 마쥌잡고 허리  
를 굽실흐며/ 셔방님게셔덕으로 횡츄흐시면 소인이군밤을 갖  
다들이겟습니다/ 양복입은자가 두눈을짜것어부치며 밤벌여노  
은좌관을들입다 차더니

이놈 쾌심흔놈…

흐며 밤을 모판지기천에다 쳐박아 버리고 단장으로 휘휘젓  
더니다시/ 돌아셔셔 수죄를흐논디 좌슈의죄의 윈썩지 흐등을  
맛듯 군밤장스죄에 군밤장스의 상전이 들츄겨난다

이놈 그썩위버릇을어디셔 비왓느냐 네 상전이 나를보거든  
그리흐라고 가라치더냐…

군밤장스가 고기를 숙이고 허리를 굽실습실흐며

네 소인이 죽을쩌라 잘못흐여습니다…상전덕에야 천부당 만  
부당흐신 분부를 흐십니다

그 디답은 다시흐지도 안이흐고 모쥌먹은 도야지 버르듯흐  
며 가니 군밤장스가 어이가 업셔 덤덤이섯다가 그스름이 멀궤  
이 간 것을 보더니 줍억으로 쌍을치고 혼자 사설을흐다<sup>28)</sup>

『빈상설』은 처첩갈등을 소재로 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을 3일간  
의 시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서정길을 중심으로 본처  
이씨 부인과 첩 평양집이 등장하지만 실상 사건은 이들의 직접적인  
분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인 복단이의 자살로부터 시작된

28) 이혜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1-3면. 강조는 인용자.



다. 복단의 죽음은 처첩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이씨 부인을 쫓아내려는 평양집의 계략이 이와 맞물리면서 사건은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소설은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과 이후 드러나는 음모, 해결자의 등장 등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는데 이를 3일이라는 서사적 시간 안에 응축하여 서술하면서<sup>29)</sup> 긴박함을 고조시키고 있다.

인용문에 제시된 장면은 서사가 시작되는 첫날 저녁으로 이씨 부인의 하인 장서방이 거리에서 군밤을 팔다 서정길에게 행패를 당하는 장면이다.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첫 장면에서 종결어미는 “들쭉겨난다”, “사설을훔다”로 단 두 번만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발화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빈상설』은 전반적으로 문장이 긴 편인데 이는 문장 안에 대화나 내면이 함께 서술되면서 연결어미들로 문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의 호흡이 긴만큼 종결어미 사용이 많지 않지만 인용문에서처럼 ~더라체에 비해 ~다체의 사용이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빈상설』에서 ~다체는 기본적으로 상황의 현재성을 반영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행동이나 발화를 미리 예고하여 장면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다체는 장면의 연결고리로서 서사의 전개를 시간적 흐름과 밀착시켜 장면의 현재성을 유지하고 소설적 세계를 연속적으로 재현해내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속적인 현재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조화되고 이로 인해 서사는 실재성을 띠게 된다. 이는 곧 소설적 세계가 실재성을 바탕으로 허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시간의 연속성은 일정한 계기에 의해 분할되며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는 공간의 이동과 심리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29) 양문규,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 2013. 50면.

① 나를 못먹겠다고 으르렁거리더니 제 꼴이 먼져 뒤여젓군…이런말이나고보면 우리아씨흥구덕이나겠지…나라도그디경이면 죽을싱각밧게안이날터이야 우리아씨야말로평양서머서방질홀씨보다 아망위되엿지히고 마음이열두번식변사를하며 **저의덕으로들어간다** 사름이착흐면복을밧고 악흐면앙화를밧는다는디…평양집이아모리구미호갓치서방님을홀이드리도 동풍에문다리쳐러지듯홀걸 아마니가이길로지소에가서…전후사설을다홀가보다 평양집경치고숫겨나가는걸좁보게<sup>30)</sup>

② 허리춤에서평양집쥬던것을집어니여 절반은쑥테어서롱문을감아니열더니 자는**제셔방을 끼인다**  
 여보 류셔방입을덥고 불쓰고자오 나는안악에 들어가 자갓쇼  
 흔마디를흐더니 제셔방이 알아들엇는지 못알아들엇는지 상관도안이히고 대문을열고 나간다<sup>31)</sup>

①의 인용문은 밤길에서 우연히 복단의 죽음을 목격한 금분이가 집으로 돌아오며 갖가지 생각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인물의 이동 경로는 골목길에서 집, 다시 집안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심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금분은 복단이 죽은 원인과 그 부모를 생각하는 한편 평양집을 떠올리며 혼란한 심리를 드러내는데 이같은 심리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다 “저의덕으로들어간다”라는 현재형의 행동 묘사와 함께 종결된다. 이때 ~다체는 앞선 인물의 심리 변화를 걷는 상태와 연동하여 현재형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물의 움직임을 통해 소설의 장면을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후에도 금분의 심리는 계속해서 묘사되지만 공간이 변화하자 이제 그 생각은 평양집을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그러나 ②의 인용문에서 금분은 결국 평양집과 작당하여 복단의

30) 이혜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16-17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31) 이혜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23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시체를 처리하기로 하고 다시 집밖을 나서게 된다. 금분이 시체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건을 알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집밖을 나서는 ①과 ②의 장면은 따라서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된다. 이때 그 공간적 변화는 “저의턱으로들어간다”, “대문을열고 나간다”라는 금분의 동선 변화에 따라 제시되며 ~다체를 통해 현재형을 유지하면서 장면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②에서는 집밖으로 나서기 전 금분이 방에 들러 평양집이 준 돈을 장롱에 숨겨두는 장면이 그려진다. 자고 있던 남편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일부러 말을 던지는데 이때 “제셔방을 끼인다”라는 문장 이후 바로 직접 발화가 이어지고 다시 대문을 나서는 금분의 모습이 묘사된다. 인물의 발화와 직접 결합하는 이같은 ~다체의 활용 역시 장면을 연속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이처럼 『빈상설』은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 과정을 인물들의 동선을 따라 서술하면서 장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이때 시간의 경과를 알리는 지표들이 소설 곳곳에 배치되면서 서사적 시간은 현재적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환기된다.

평양집은금분이를 보니고회보오기를 고디호로라고 잠을자 지못호고 연히미다지를 널고니다보논디 머리맛해결인종이 식로श्यक을 쌍쌍치고...마루밋헤셔 자든삼삼이가쿵쿵짓더니 즈최소리가즈박즈박나며 안마당으로들어온다 평양집이반식을호야반기며 (평)에험 이지이지 짓지말아 거기누가왔니<sup>32)</sup>

위의 장면에서 평양집은 복단의 시체를 처리하려 간 금분을 기다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복단의 시체가 발견된 시점이 이미 밤이었다는 점에서 위의 장면은 그로부터 시간이 더 경과한 것

32) 이혜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26면. 강조는 인용자.

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자명종 소리가 묘사되면서 정확한 시간이 드러나고 있다. 머리말에 걸린 종이 “시로श्यक을 쌍쌍치”면서 시간을 알리자 때마침 금분이 일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같은 시간성에 따른 행동의 묘사는 인물의 행위에 실제성을 부여하는 한편 사건의 전개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계를 통해 시간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다체의 행동 묘사가 이를 이어받으면서 서사적 시간은 현실성을 획득하고 장면은 현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복단의 죽음 직후부터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구체적 시간과 함께 제시하여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1일차: “히는 거진넘어가는데(1)”-“굴둑마다 저녁연기가 안 이나는집이업셔(7)”-“감감칠야 으스스흔골목에서 그광경을 보았(14)”-“머리맞헤결인종이 시로श्यक을 쌍쌍치고(26)” 2일차: “창빛이겨오 사름아라불만흔디(29)”-“오늘은식전에 무슨바람 이불엇느어서들어오시오(49)”-“그놈다려오정짜 쏘오라고맛줍 디다(55)”-“올치인제 오포노앗군 저오포는 일본오정이니까 우리나라오정은 반시나더잇셔야 되게지만(59)”-“복단아비는 저녁을지축호여 짓는디(62)”-“오늘밤시벽두시에 써나게호신다고 호셔요(73)”-“이웃집종소리가 두번을쌍쌍치니 장안만호에 등 불을톡톡쓰고(77)” 3일차: “이이네가자다말고 첫시벽에이러안 저 우눈곡절이 웬곡절이나(89)”-“히가발셔 올라오려는지 낙산 중허리가 흥공단포장을 들은듯하게 황홀이불어지며(93)”-“여 보무엇호오 조반호상차리오 손넘오셨소(96)”-“왜밤이 시로두 세시가 되도록 안이줍으시오(119)”<sup>33)</sup>

위의 인용문은 약 3일 동안 전개되는 사건의 진행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른 새벽부터 정오, 밤늦은

33) 이혜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괄호 안은 쪽수 표기.

시각으로 서사적 시간이 분배되면서 매 시간에 따라 사건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며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시간의 분배는 의식적인 기법으로 “그놈다려오정씨 또오라고맛줍디다”, “오날밤시벽 두시에 썬나게흐신다고흐셔요”라며 사건이 벌어질 구체적 시간을 제시하여 전후의 상황에 긴장감을 붙여넣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서사의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보다 현실감 있는 전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을 알리는 구체적 표지는 시계 뿐 아니라 정오를 알리는 오편 소리로도 제시된다. 오편 소리로 당시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반시 정도의 시차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은 소설의 시간관이 공간에 따른 시간성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입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이처럼 『빈성설』은 실제적인 시간의 흐름을 서사의 전개에 반영하면서 현실의 감각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허구적 세계를 현실적인 것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 3. 장면의 부상과 객관적 서술의 가능성

소설이 현실적 시간에 의해 구조화되고 현재형의 문체가 이를 뒷받침하면서 화자의 위치는 변화하기 시작한다. 신소설에서 화자는 여전히 전지적 시점에서 서사의 전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공간을 넘나들며 소설적 세계를 관장하는 전능한 화자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소설은 꿈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의 입을 통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에 따른 사건의 진행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 변화를 통해 전개된다. 즉 소설의 시공간이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시시각각 생각하고 발화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서사는 화자가 주도하는 이야기 구조에서 장

면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때 화자는 상황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매개자, 즉 메신저로 변모하며 묘사를 통해 장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문체는 화자의 위치와 시선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신소설은 ~더라체로 대표되는 구투와 현재형의 ~다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용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일정한 구분에 의한 분별적 사용을 보여준다. ~더라체의 경우 사건의 요약이나 화자의 주관적 견해, 부수적 정보, 인물의 과거사 등 시간성을 동반하지 않는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서술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는 서사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정보와 독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요소들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에 비해 ~다체의 경우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인물의 행동과 심리, 시공간적 배경 묘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때 화자는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관찰을 통해 구체적 상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체는 화자의 시선을 객관화하면서 장면을 통한 서사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장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다음의 인용문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 보초병이부인을잡아서압세우고가는디서로말은못하고병어리가소를물고가듯한다...그부인은어딘지모르고가나...정신을차려본즉평양성북문이라 둑은혜를치며울고기느려 기구녁으로쥬동이만니여눓코짓는다<sup>34)</sup>

② 밤이되미비로소정신이 느끼시작하느디 썸끼고잠끼이듯...모란봉에 안끼기것듯 촛촛정신이난다...나눈엇지호야 여괴와셔누엇던지 곡절을모른다 차차분즉내집이오 차차싱각혼즉...도적놈의게 욱을불번흐던싱극이느면서 시로히소름이끼친다...

34)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 8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벌떡이러안졌스니 시로남편싱국과옥년이싱국만는다  
 온방에는옥년이가자는듯하고 사랑방에는남편이잇난듯하다  
 옥년이롤부르면느울듯하고 남편을부르면디답을할것자다 옥년  
 이를불러보리라하고 옥년아옥년아부르다가소름이죽죽끼치고  
 소리가점점음추러진다<sup>35)</sup>

『혈의루』의 초반부는 옥년 어머니의 행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피난 중 헤어진 남편과 옥년을 찾아 밤새 모란봉 산기슭에서 일본군 헌병부로, 다시 집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소설은 그 이동 경로를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다. ①에서는 일본군 보초병이 옥년 어머니를 앞세우고 헌병부로 향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으며 ②에서는 헌병부에서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 옥년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①의 경우 화자는 인물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선을 이동하면서 현재형의 시점으로 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병어리가소름물고가듯한다”라는 표현에서처럼 화자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인물들의 행위를 관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화자는 잠시 옥년 어머니의 시선으로 공간의 변화를 제시하다 닭이 울고 개가 짖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현재형의 문체로 포착되면서 장면의 현장성은 배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②에서는 집으로 돌아온 옥년 어머니의 내면 변화가 장면으로 대두되며 “나”의 시점으로 현재적 상황이 서술되고 있다. 옥년 어머니의 심리는 “정신이난다”, “꼭질을모른다”, “소름이끼친다” 등 현재형의 문체로 지속적으로 포착되며 이를 통해 가족을 잃은 여인의 비극적 상황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신소설은 시공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화자는 이러한 장면을 관찰하여 보여주는 역할로 한정된다.

35)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 15-17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앞서 언급했듯이 『혈의루』는 서사적 시간이 길고, 공간의 이동이 잦은 만큼 그 변화를 통해 장면을 이어가는 것이 서사의 전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시공간의 급격한 변화가 동반되는 장면에서는 특히 ~다체를 통한 객관적 묘사로 집중감과 몰입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는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① 병정이 옥년을 이끌다리고 정상군의 집안으로 드러갔다 병정은 정상부인을 데리하야 군의 소식을 전하고… 옥년이는 정상부인의 눈치 **몬본다** 부인의 눈은 삼십이 되록 말록 하니 년기는 옥년의 모친과 그 렷게 갖트느 싱긴 모냥은 **반디만되얏다** 옥년의 모친은 얼굴이 희고 도화식을 찍었더니 정상부인의 얼굴이 희기느 희느 **청기가 돈다**<sup>36)</sup>

② 그썸 옥년이 가고 등소학교에서 졸업우등생으로 옥년의 일흔와 옥년의 사적 이화성돈신문에 낫는디 그신문을 보고 이상히 깃버흐는 사름 흐느 히잇는디 엇지 그 렷게 깃부던 지부지중 눈물 **이 쏘다진다** 깃분마음을 이기지 못 하야 도로 혀의심을 낸다 의심중에 혼즈 말로 중 **일중일하다** 영서로 번역 혼거시라 흑번역이 잘못되얏느…<sup>37)</sup>

①의 인용문은 일본으로 건너간 옥년이 정상군 집에 당도하여 양 어머니가 될 부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집안으로 드러갔다”, “눈치 몬본다”라는 옥년의 행동 묘사로 공간적 배경과 그 분위기가 드러나는 한편 이어 “옥년의 모친과 반디만되얏다”, “청기가 돈다”라는 묘사로 부인의 외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때 장면은 세 명의 인물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옥년의 모습에서 부인과 병정으로, 다시 부인의 외양으로 화면을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인물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부인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묘

36)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 39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37)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 69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사되고 있는데 이때 화면은 부인에게로 집중되면서 장면이 확대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장면의 중심에서 한 발 벗어나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면서 인물들의 행위와 심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다체를 통해 현재형으로 서술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따라서 화자의 부연 없이도 장면은 실제성을 통해 몰입감을 부여받게 된다.

②에서는 미국에서 머물던 옥년 아버지가 우연히 신문에서 옥년의 기사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소설의 말미에 등장하는 이 장면은 이미 서사적 시간이 9년이 지난 시점으로 옥년의 미국 생활이 그려지던 중 별다른 예고 없이 갑자기 장면으로 제시되고 있다. 마치 카메라의 앵글이 이동하여 새로운 사물을 포착하듯 그려지는 이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다 의심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현재형의 문체로 집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같은 장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실제적 상황으로 그려진다는 점, 또한 그 배경이 옥년의 시공간과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부녀의 재회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혈의루』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공간의 변화를 현재적 장면을 통해 부각하면서 상황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서사의 전개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같은 장면 활용은 소설적 세계가 현실의 모방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장면의 부상에 있어 인물의 발화나 심리의 묘출은 상황의 현장성을 배가시키고 사건의 직접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신소설에서는 인물의 발화를 지문과 구분하여 행을 나누어 서술하면서 화자의 영역에서 인물의 발화를 독립시키고 있는데, 이는 인물의 발화가 화자의 주관성에서 벗어난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발화는 화자의 역할을 보완하면서도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등장 인물의 발화와 내면 서술은 인물의 성격과 주관을 직

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즉 화자에게 집중되었던 서술의 주도권이 인물을 통한 발화와 심리 등으로 분산되면서 단선적 구조에 머물던 장면은 점차 복합적 층위로 구성되어가는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빈상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①평양집분부라면 쓸쓸구는터이라 차잡마누라가 밋쳐안마 당에도 못다와서 서방님은발서 안마루에 올라섰다……정길의 가삼이죄지은놈 두군디듯하야 평양집억지를흔들흔들하며 썰썰비는슈작을한다

(서)이건 별안간에 성불이되랴나 감중년하고 말은안이하게<sup>38)</sup>

②이년들 어더터지랴거든 거기섯거라

하며 문간을 연히힐긋힐긋 꺾눈으로 니다본다 이씨집안식구라고 방구석에는 하나토못있고 모다뒤뜰에 구석구석서서 엇진림문인지몰고 눈들이휘둥그런데…서서방의허리씩를놋코 금분에게로 구실을붓는다

(평)이년 너는어더케 싱긴년안디… 가랑이를 바리고잡바져 자다가인져야 아실낭아실낭 나오너냐<sup>39)</sup>

①에서는 평양집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서정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때 그 양상은 인물의 행동과 발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빠른 속도로 안마루에 올라서는 모습에서부터 평양집의 어깨를 감싸며 눈치를 보는 행동이 묘사되는 한편 “수작을한다”는 문장 이후에는 직접 발화가 이어지며 평양집의 속내를 떠보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이같은 장면은 서정길의 행동과 발화를 통해 역동적으로 그려지면서 그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

38) 이해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32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39) 이해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35-36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황이 비교적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②의 인용문에서도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평양집의 행동과 발화를 통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평양집은 펜스레 집안 하인들에게 소리를 치며 금분이를 찾기 위해 걸논으로 문간을 내다보다가 금분이를 발견하고는 발화를 시작한다. 이때 “구실을붓는다”는 문장 이후 직접 발화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복단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러 금분을 나무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들의 발화는 장면의 현장성을 살리는 한편 서사의 전개에 필요한 단서들과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장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같은 인물의 발화는 ~다체를 동반한 현재적 시점으로 서술되면서 장면의 현재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상설』에서 ~다체는 장면의 현장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사건을 보다 현실감 있게 전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직접 발화와 내면 묘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빈상설』에서 ~다체는 인물의 발화와 내면 변화를 이끄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①원리부평즈체로 의스도넉넉호고용셔성도적지안이훈승학  
이라 얼마썸속으로공리를호여본다

우리미부란자이언제나지각이나나노 분나는디로호면이길로  
야단을치고 우리누의넘은모시고갓스면고만이겟지만은<sup>40)</sup>

②턴진으로변통성업는복단아비는 서방님만치어다보고 무슨  
요흔의론이나나을줄바랏더니 녀이풀니고기가막혀 야속호마암  
이싱긴다

여보복단어머니 나갑시다 밋고바랄곳이어디요 다쓸티업소  
어셔나와요...<sup>41)</sup>

40) 이해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65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41) 이해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66면. 숫자 표기와 강조는 인용자.

위의 인용문들은 평양집의 계약으로 납치의 위기에 놓인 이씨 부인을 그 쌍둥이 남동생 승학이 나서서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 승학은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①의 인용문에서처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속으로공리를호여본다”는 문장 이후 방도를 찾고자 고심하는 승학의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다체는 인물의 내면을 유도하는 동사와 결합하여 이어지는 서술이 발화가 아닌 마음 속 생각임을 알게 한다. ②에서는 승학의 생각을 모르는 복단아버가 승학을 야속하게 생각하며 이씨 부인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서는 복단아버의 내면이 “야속훈마암이싱긴다”라고 서술된 이후 그 심정을 드러내는 직접 발화가 이어진다. 이처럼 위의 인용문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이끄는 동사와 ~다체가 결합하여 발화와 내면을 구분하는 한편 그 내면의 흐름을 상황과 연계한 현재형의 시점으로 포착해 내고 있다. 이같은 심리의 묘출로 소설은 외적 상황에 의한 표면적 전개뿐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통한 이중의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

승학이 개입한 이후 소설은 점차 사건을 해결해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승학이 단순히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탐정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장남자로 변복을 하고 사건의 중심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씨 부인을 제주로 피신시킨 후 여장을 한 승학이 계속해서 서사를 이어가면서 위기감을 높이는 이같은 기법은 구소설의 변신 모티브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상설』은 쌍둥이라는 설정으로 변신 모티브의 비현실성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한편 인물의 내면 서술로 독자들에게 실제적 정황을 알려 보다 현실적인 서사를 구축해가고 있다. 여장남자라는 극적 설정에서 인물의 표면적인 행동과 발화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거짓으로 드러나는 반면, 내면 고백은 그 행위의 실제적 의도를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기제로 활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면 묘사

는 사건의 전개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장면의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처럼 『빈상설』에서 인물의 발화와 내면은 장면에 현장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소설의 사실적 전개를 위한 객관적 서술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다체는 이같은 발화와 내면을 현재적 상황과 연결하면서 그 용법을 통해 이어질 서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집헌테실컨허려든다(4)-죽을권한다(8)-말을한다(12)-더퍼붓는다(13)-칙망이나온다(29)-발악을한다(33)-불호령이나온다(34)-부산을친다(34)-풍당풍당히답을한다(73)-슈작을한다(75)-정답게인스를한다(79)-제공치스도한다(84)-마쥬우름이나온다(90)-함부로말이나온다(91)-못흔말을한다(92)-선심이나온다(95)-디답이나온다(97)-자복을한다(101)-상노놈을 불은다(116)<sup>42)</sup>

위의 인용문은 『빈상설』에서 직접 발화와 내면 서술을 이끄는 ~다체의 활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다체가 단순히 발화를 연결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을 통해 이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발화의 시작을 알리는 “나온다”, “한다” 등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이를 “칙망이나온다”, “불호령이나온다”, “선심이나온다” 등으로 상황과 연계한 표현으로 구체화하면서 발화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장면을 유지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한다”, “발악을한다”, “슈작을한다” 등에서도 행위 동사의 쓰임을 세분화하여 이어질 발화나 내면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42) 이혜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괄호 안은 쪽수 표기.

~다체와 결합한 동사의 활용으로 인물의 발화와 내면은 지문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면은 현재적 시점을 유지하면서 현장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 4. 초기 소설의 양식적 정립과 허구성의 자각

근대에 들어 소설은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현실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삶의 구체적 단면을 그리는 양식으로 변모하여 갔다. 특히 공공성을 내세운 매체의 영향으로 사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거짓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설은 전대의 비현실적 환상성에서 탈각하여 점차 사실에 기반 한 현실적 세계관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소설의 근본적 자질인 허구성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1900년대 소설에서 발견되는 이같은 양상은 소설 양식의 근대적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00년대 중반 이후 매체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소설은 현실적 내용의 수용과 함께 일상적 허구로의 착안으로 새로운 양식 실험을 시도해 갔다. 이시기 소설은 거짓을 의식하면서 사실에 근접해 가는 한편 이를 통해 다시 허구의 의미를 재편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당시 신소설에서 보이는 “기(記)” 의식은 사실을 그대로 옮긴다는 표면적인 의미 외에 기법적인 차원에서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새로운 표현 양식들을 생성해 가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의 기록이라는 이시기 소설의 기치는 소설이 다만 거짓이 아니라는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기 위한 실천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실에 주목하여 현실을 인식해 가는 신소설의 이같은 변화들은 소설 양식의 근대적 전환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인직과 이해조의 초기 신소설 『혈의루』와 『빈상설』

을 대상으로 이같은 양식상의 변화 과정을 시간성의 변화와 장면의 부상 과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문체로 등장한 ~다체의 역할과 그 기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기법으로써의 문체가 새로운 양식을 견인해 가는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체는 서사 전반의 시간성을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한편 이를 장면을 통해 구체화하면서 실제적 삶의 단면들을 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소설의 시간적 흐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서사를 이끄는 근본적 동력으로 작용하며 사실성과 개연성을 부여하는 매개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적 시간성의 도입과 현재형의 문체인 ~다체의 활용은 그러므로 소설적 세계를 현실적 삶의 모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1900년대 후반 소설은 허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신소설의 문체는 ~더라체로 대표되는 구투의 문체와 함께 새로운 문체인 ~다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작가가 문체를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용법적인 측면에서 이들 문체가 서술의 방식에 차이를 부여하고 있는 현상은 사실로 드러난다. 특히 시간성의 구분에 있어 이러한 양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현재적 시간으로 부상하는 장면을 실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다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문체의 활용으로 신소설의 화자가 전대소설의 화자와는 다른 객관적 면모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시간 속에 사실적인 배경과 생동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화자는 차차 장면의 중심에서 물러나 관찰자의 시선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화자의 주관적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나아가 묘사를 통해 그려지는 장면과 직접 마주하게 되고 이로써 보다 능동적인 독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신소설이 주장한 사실에의 강조는 당대성을 반영한 현실의 기록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설이 사실의 가치를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가상이 아닌 실재를 통해 허구를 구축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기초자료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이해조, 『빈상설』, 광학서포, 1908.

2. 저서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12.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사』, 솔, 1997.

송민호, 『한국개화기소설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5.

양문규, 『한국 근대소설의 구어전통과 문체 형성』, 소명, 2013.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규찬, 한진일 편, 한길사, 1993.

정선태, 『개화기 신문논설의 서사 수용양상』, 소명, 1999.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3. 논문

권보드래, 「한국 근대의 ‘소설’ 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김영민, 「근대계몽기 단형(短型) 서사문학 자료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17호, 2002.12, 103-124면.

김영민,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초반 한국의 근대문학- 서사문학의 전개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49호, 2008. 133-157면.

김윤진, 「1900~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종결어미 ‘-니다’에 대한 고찰」, 상허학보 제49집, 2017. 2. 151-195면.

김태준, 「조선소설사(朝鮮小說史)(1)」, 『동아일보』, 1930. 10. 31.

문한별, 「근대전환기 언론 매체에 수용된 서사체 비교 연구: 학회지와 신문의 비교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009. 183-210면.

박헌호, 「한국 근대 단편양식과 김동인(II): 소설관의 표출양상을 중심으로」, 기전어문학, 1996. 175-195면.

- 백지은, 「문(학)의 이념-근대 초기 문학 담론에서 “문(체)”의 문제」, 민족문화 연구, 2014. 531-559면.
- 최태원, 「<血의 淚>의 문체와 담론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사에구사도시카쓰(Saegusa Toshikatsu), 「이중표기와 근대적 문체 형성 - 이인직 신문 연재 「혈의 누」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15권, 2000. 41-72면.
- 서은경, 「1900년대 “단편소설(短篇小說)”과 1910년대 “단편소설”에 대한 비교적 고찰 - 계몽의 후퇴와 주체의 전면화」, 2007. 현대문학의 연구 31권, 215-243면.
- 윤영실, 「근대계몽기 ‘역사적 서사(역사/소설)’의 사실, 허구, 진리」, 한국현대문학연구, 2011. 61-103면.
- 이유미, 「특집 : 한국문학사의 쟁점 1 - 근대계몽기 ; 근대계몽기 “단편소설”의 위상 - 『대한민보』 소설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004. 130-166면.
- 최학송(崔鶴松), 「조선문학개척자(朝鮮文學開拓者) 국초(菊初)이인직씨(李仁植氏)와 그작품(作品)」, 중외일보, 1927. 11. 15.
- 한기형,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 - 『소년』, 『청춘』의 문학사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 2004. 221-260면.
- 한진일, 「근대 단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 : 191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 A Study on the Fictitious Transformation Pattern of Early Modern Novels

Jung, Young-Jin

This paper examines the new forms of change found in novels since the mid - 1900s from the viewpoint of transforming fictions. In the early modern novels, in the influence of media discourse, they gradually approached the problem of reality and began to accept fact - based contents. Changes in content led to changes in style and new techniques emerged. This reflects changes in the fictitious nature of novels. Since 1906, the style of novel has become a trend of change. In this time, the novel is a record of facts, and it shows the aspect of becoming a full-fledged fiction by building realistic fiction based on everyday life. Thus, the banner of this novel, the record of reality, can be seen as a practical process for conceiving a novel.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 patterns of new novels based on facts in two early novels 『Hyul Uinu』 and 『Binsangseol』. The new novels tried to reproduce the sense of reality through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but this consciousness is revealed through the change of style. The new novels, which are mixed with the old style represented by ~dula style, and by ~da style but these styles are being used separately, giving a difference in the way of narrative.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the new style is effectively used to express the scenes emerging at the



current time. It also confirmed the process by which the speaker of the new novels has an objective aspect. In the end, the emphasis on the facts claimed by the new novels can be attributed to the record of reality.

Key words: New Novel, Fictionality, Style, Temporality, Scene

투 고 일 : 2018년 8월 11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1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